

大學의 社會·心理的環境의 影響에 관한 研究

—大學生의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의 有意性 檢證—

崔 志 雲*

- | | |
|---------------|----------------------|
| I. 序 論 | 1. 學問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
| 1. 研究의 意義 | 2. 社會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
| 2. 研究의 目的 | 3. 道德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
| II. 理論的 背景 | 4. 性格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
| 1. 先行研究의 考察 | 5. 批判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
| 2. 假 定 | 6. 綜 合 |
| III. 研究方法 | V. 論議 및 結論 |
| 1. 研究對象 | 1. 論 議 |
| 2. 道 具 | 2. 結 論 |
| 3. 資料의 蒐集과 處理 | 參考文獻 |
| IV. 結果 및 解釋 | |

I. 序 論

1. 研究의 意義

人間의 成長·發達은 人間(個體)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으로 成立된다는 생각은 레빈(Lewin, 1935, 1936)의 行動의 公式이 발표된 이후 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教育者도 教育의 成果(學生의 成長·發達)는 學生(個體)과 環境(學校, 家庭, 地域社會等)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前提下에 個體로서의 學生特性, 環境으로서의 學校特性, 그리고 이 兩特性사이의 關係를 밝혀보려는 探究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教育의 成果에 미치는 影響에 있어서 學校環境特性보다 學生個人特性이 더 重要하다고 보는 연구결과(Eysenck, 1971, Herrn-Stein, 1973, Coleman, 1966)가 있는가 하면 學生特性보다 學校環境特性이 더 重要한 影響변인으로 보는 연구(McDill Riqsby, 1973., Brookover, 1977)도 있고 이 兩者사이의 作用的 혹은 過程的變因이 더 重要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Dave, 1963; Endler & Hunt, 1966; Bowers, 1973). 그러나 大學環境의 特性을 밝히고 이 大學環境特性이 大學生의 成長에 어떻게 影響을 주며 또 大學環境과 大學生사이에는 어떠한 作用關係를 성립시키고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않다.

* 人文大學 教育學 教授

大學環境을 概念化하고 이를 尺度化하는 연구는 1950年代 부터 美國에서 企圖되었다(Pace and Stern, 1958 ; Sanford, 1962). 그후 大學環境의 影響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그다지 活潑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年初에 李潤樹(1971, 1974)에 의해 大學環境에 관한 연구가 試圖되었고 最近에 이르러서는 黃禎奎(1981. 1982)와 崔志雲(1983. 1984)에 의해 大學環境의 影響에 관한 分析的인 研究가 試圖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大學環境에 관한 經驗的이고 實證的인 接近의 研究는 아직도 未開拓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現狀態에서 볼때 大學環境特性에 관한 보다 더 分析的인 研究와 이 환경적 특성과 大學生의 行動의特性과의 影響關係를 밝히는 研究는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環境特性과 大學生과의 행동특성의 關係를 규명하므로써 大學目標의 達成을 위한 教育課程의 構案, 學生指導, 施設計劃, 大學文化의 造成등에 寄與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뜻에서 이 研究는 現時點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고 본다.

2. 研究의 目的

이 研究는 研究者의 先行研究(大學의 社會·心理的環境變因과 大學生의 情意的特性變因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1983; 大學의 社會·心理的環境이 情意的 特性에 미치는 影響, 1984)의 結果를 土台로 大學의 社會·心理的環境이 大學生의 自我概念의 形成에 어느정도 影響을 주는가를 1—4학년 학생사이의 差異 檢證을 通하여 確認하려는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萬一 이 差異檢證에서 有意한 差를 보인다고하면 大學環境이 自我概念의 形成에 그만큼 影響을 미친다는 推測이 가능할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大學環境의 影響력은 그만큼 無力하다는 推定을 가능케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와같은 大學環境의 影響力을 推定하는데 目的이 있다.

Ⅱ. 理論的 背景

1. 先行研究의 考察

大學環境의 影響에 관한 先行研究를 살펴보면, 첫째로 大學環境이 學生들에 미치는 影響력의 示唆을 주는 연구와, 둘째로 大學環境의 影響을 實證的으로 밝혀보려는 經驗的연구로 크게 나눌수 있다.

大學環境의 影響에 관한 示唆을 주는 研究에는 Dressel 과 Mayhew 의 信念(belief)에 관한 연구, Jacob의 大學生價值觀研究(1957), Goldsen 등의 코오넬價值觀研究(Cornell Values Study, 1960), 그리고 Barten(1959), Eddy(1959), 金泰吉(1967)의 大學生의 態度 및 價值觀形成에 관한 研究등을 들수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共通하게 指摘하고 있는 點들을 보면 大學生들의

信念 態度 및 價値觀의 形成에 영향주는 主要變因은 大學 나름대로 가차고 있는 環境의 特徵, 獨特한 雰圍氣, 文化 또는 風土등임을 들고 있다.

大學環境의 影響에 關하여 經驗的으로 接近한 研究(Empirical study)에 있어서 그 代表的인 것은 Feldman 과 Newcomb(1968), Rich 와 Jolicoeur(1978), Astin(1978) 그리고 崔志雲(1983)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Feldman 과 Newcomb(1968)은 1920年代부터 1960年代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에 걸쳐 美國에서 발표된 大學研究보고서를 集中的으로 分析한 결과 大學環境의 特異성과 관계없이 在學期間中 學生들의 權威主義, 獨斷主義(dogmatism), 宗教的 正統性(orthodox form)은 低下(혹은 減小)하는 반면, 審美的價値觀은 增加(向上)하여 情意的 特性에는 基本的인 變化를 가져오지 않으며 다소 補強하거나 助長해주는 程度의 影響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둘째로 Rich 와 Jolicoeur(1978)의 研究에서는 大學의 特性에 따라 학생들에게 影響을 주는 程度가 다르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는데, 例컨대 小規模大學, 私立大學, 寄宿舍가 學生들의 批判的自我觀을 增進시켜주는 반면, 아노미, 獨斷主義를 減小시키며, 政治的및 社會的意識을 높여주며, 宗教的信仰은 弱화시키는 傾向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셋째로 Astin(1978)은 그의 縱斷的研究에서 大學生의 情意的特性에 대하여 大學의 特性에 따라 正的 혹은 負的인 影響을 주기도 하는데 負的인 影響을 주는 大學에는 美國南部 地域의 黑人大學과 二年制大學등임을 指摘하고 있다. 넷째로 崔志雲(1983)은 大學環境變因과 大學生의 情意的特性과의 關係를 밝히는 研究에서 學問指向性, 體制維持, 및 個人·環境相互作用등 세가지 環境特性中에서 大學生의 情意特性(價値指向性, 自我概念)에 주는 影響의 정도를 相互作用>學問指向性>體制維持로 보여주고 있으며, 價値指向性 특성보다 自我概念特性이 더 많은 환경적변인의 影響을 받고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研究結果를 놓고 볼때 大學環境은 大學生들의 행동에 影響을 줄만한 潛在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大學 나름대로의 環境의 特性에 따라 實際로 발휘되는 影響력의 強度는 다르기는 하나 正的 혹은 負的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는것 만은 確實하다. 그러나 大體적으로 大學環境의 影響力은 매우 微弱하다고 볼수 있다.

2. 假 定

以上の 先行研究의 結果를 土台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假定을 세워볼수 있을것 같다.

첫째로, 大學의 環境은 各大學特有의 環境의 特性에 따라 大學生의 情意的特性(특히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은 相異할것이다. 다시 말해서 正的·負的으로 影響을 주거나 혹은 影響을 주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위의 假定이 否定되지 않는다면 1-4학년학생사이의 自我概念의 點數에는 大學에 따라 그 差가 有意味 혹은 無意味한 結果를 보일 것이다.

셋째로, 全體的으로 볼때, 1-4학년 학생사이의 自我概念의 點數에는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Ⅲ. 研究 方法

이 研究는 이미 Ⅱ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研究者가 앞서 實施한 先行研究(1983)의 結果에 근거하여 大學의 社會·心理的 環境이 大學生의 情意的 特性과의 影響關係를 再確認하는데 主要 意圖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研究설계에서는 獨立變因으로 다루었던 環境特性變因을 除外하고 從屬變因中에서 自我概念의 變因들 만을 뽑아서 1-4학년 사이의 差異檢證을 실시하여 大學環境變因의 影響을 間接的으로 檢證하는 方法을 採擇하였다.

1. 研究對象

研究對象은 研究者의 先行研究(1983. 1984)에서 對象으로 삼았던 64個4年制正規大學(教育大學, 神學大學, 地方分校 除外)中에서 無作爲로 12個大學을 標本抽出하였고 이 大學中에서 1학년 학생 1, 300명과 4학년 학생 1, 800명을 각 대학별로 適宜配分하여 測定對象으로 삼았다.

標集對象大學, 學生數 및 有效反應率은 <표 1>와 같다.

<표 1> 研究對象: 標集 數와 反應 數

區 分 大學名	1 學 年			4 學 年			計		
	標集數	有效反應數	反應率(%)	標集數	有效反應數	反應率(%)	標集數	有效反應數	反應率(%)
SE	140	101	72.1	40	33	82.5	180	134	74.4
SJ	130	126	96.9	270	240	88.8	400	366	91.5
YS	120	94	78.3	200	180	90.0	320	274	85.6
EW	110	83	75.4	260	245	94.2	370	328	88.6
JA	120	92	76.6	250	221	88.4	370	313	84.5
KJ	80	56	70.0	90	64	71.1	170	120	70.5
SS	60	43	71.6	30	22	73.3	90	65	72.2
HN	140	108	77.1	290	241	83.1	430	349	81.1
WK	150	120	80.0	120	105	87.5	270	225	83.3
JJ	90	50	55.5	80	78	97.5	170	128	75.2
JE	80	46	57.5	110	99	90.0	190	145	76.3
JW	80	60	75.0	80	60	75.0	160	120	75.0
計	1, 300	979	75.3	1, 800	1, 588	88.2	3, 100	2, 567	82.8

위의 표<1>에서 볼수있는 바와 같이 標集數에 대한 有效應答率은 82.8%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4학년 학생의 標集數가 1학년 학생의 것보다 많은것은 4학년 학생의 有效應答率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 道 具

이 研究에서 使用한 自我概念 測定道具는 Fitts(1965)가 제작한 검사와 이를 기초로 鄭元植(1968)이 만든 檢査 그리고 Shavelson등(1976)이 만든 檢査들을 참고로 學問的, 社會的, 道德的, 性格的 및 批判的自我등 다섯가지 自我概念 領域으로 나누어 총 75問項(한 領域에 15問項씩 배당)을 試作했고 이것을 要因分析, 再檢査 및 段階的 信賴度 檢證(α 檢證)을 거쳐 道具의 妥當性和 信賴도를 높였다.

各 自我概念 領域別 信賴度 系數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自我概念 檢査의 問項數와 信賴度

領 域	問 項 數	信 賴 度 系 數	
		α	再 檢 査
學 問 的 自 我	15	.76	.84
社 會 的 自 我	15	.75	.81
道 德 的 自 我	15	.71	.70
性 格 的 自 我	15	.70	.81
批 判 的 自 我	15	.62	.71
計	75	.71	.77

3. 資料의 蒐集과 處理

資料蒐集을 위하여 標本大學別로 檢査紙를 配付했고 檢査實施는 주로 教育學과 心理學을 專攻한 教授의 協力으로 이루어졌다. 서울市內 所在大學에는 研究者가 직접 訪問하여 協力教授에게 檢査實施의 要領을 일러주었고 地方大學에는 書信으로 檢査要領을 傳達하였다.

檢査對象 學生中 1학년은 教養科目時間에, 4학년 學生은 여러 學科學生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教職科目 受講時間에 檢査를 실시하여 特定學科의 學生에게 偏重되지 않도록 하였다.

蒐集된 資料는 事前에 하나 하나에 대하여 檢討를 加하여 有効하게 應答한 것만을 골라내어 處理했다. 統計處理는 研究者가 속해있는 崇田大學校의 電算室의 協力を 받아 電算處理했고 두집단(1-4학년집단)사이의 差異檢證을 산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IV. 結果 및 解釋

5個 自我檢證 領域(學問的, 社會的 道德的, 性格的 및 批判的 自我)別로 나누어 두 集團(G1: 1학년학생집단, G2: 4학년 학생집단)間的 有意度檢證(T檢證)結果를 다음에 提示했다.

1. 學問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學問的 自我概念에 있어서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학년 학생집단 사이에 있어서 有意한 差($p \leq .05$)를 보여주고 있는 대학은 4개 대학(SE, JA, HN, WK)이다. (표 3참조) 그런데 이들 4개대학이 모두 평균점수에 있어서 4학년이 1학년 보다 낮은 점수이다. 그리고 全體的으로도 1-4학년 사이에 有意한 差($P \leq .000$)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4학년 점수가 1학년 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대학은 학생들의 學問的 自我概念에 영향을 미치는는 하나 肯定的이기 보다 否定的인 方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有意한 差를 나타내고 있는 대학이 全體12個大學中에 4개대학에 不過하다는 점을

<표 3> 三集團間的 有意度: 學問的 自我

대 학	구 분	집 단	N	M	SD	T	P	비 고
SE		G1	101	38.0495	5.695	2.25	0.029*	
		G2	33	35.3939	5.958			
SJ		G1	126	39.0556	5.355	0.89	0.374	
		G2	240	38.5167	5.783			
YS		G1	94	40.9043	5.553	0.26	0.792	
		G2	180	40.7111	6.122			
EW		G1	83	37.6024	5.829	1.92	0.057	
		G2	245	36.1837	5.763			
JA		G1	92	39.8913	5.739	3.67	0.000*	
		G2	221	37.2443	5.983			
KJ		G1	56	37.8214	6.396	-1.21	0.227	
		G2	64	39.1719	5.695			
SS		G1	43	36.8837	5.662	0.67	0.505	
		G2	22	36.0000	4.650			
HN		G1	108	39.0185	5.680	2.48	0.014*	
		G2	241	37.3485	6.080			
WK		G1	120	38.6250	5.706	2.17	0.031*	
		G2	105	36.9143	6.056			
JJ		G1	50	38.9600	6.144	0.84	0.401	
		G2	78	38.0513	5.638			
JE		G1	46	36.5870	5.924	0.67	0.506	
		G2	99	35.8384	6.991			
JW		G1	60	35.2333	4.817	-1.61	0.110	
		G2	60	36.8167	5.893			
計		G1	979	38.5066	5.812	3.69	0.000*	
		G2	1,588	37.6178	6.126			

G1: 1학년 집단 G2: 4학년 집단

놓고 볼때 학교에따라 영향의 정도는 다르기는 하나 大體的으로 學年이 거듭될수록 學問的 自我觀을 低下시키는 작용을 大學이 加하고 있다는 推論이 可能하다.

2. 社會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社會的 自我概念에 있어서는 12個大學中 2個大學(SJ, JW.大)만이 有意한 差를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2個大學中 1개大學(SJ 大)은 4학년의 平均値가 1학년의 것 보다 낮고 나머지 1개大學(JW 大)은 그 반대이다. 그리고 이 2個大學을 제외한 나머지 10個大學은 아무런 有意한 差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全體的으로 볼때에는 역시 아무런 差가 없다. 이와같은 結果

〈표 4〉 두 集團間의 有意度 : 社會的 自我

대 학	구 분	집 단	N	M	SD	T	P	비 고
SE		G1	101	40.5644	5.305	-0.79	0.434	
		G2	33	41.4242	5.477			
SJ		G1	126	43.1587	4.860	2.02	0.044*	
		G2	240	42.0000	5.809			
YS		G1	94	43.2340	5.136	0.88	0.381	
		G2	180	42.6389	5.665			
EW		G1	83	41.7470	5.229	0.66	0.509	
		G2	245	41.3061	5.272			
JA		G1	92	44.5543	5.763	-0.73	0.465	
		G2	221	43.0543	4.803			
KJ		G1	56	42.3393	5.435	-1.03	0.307	
		G2	64	43.3594	5.438			
SS		G1	43	43.0698	5.045	1.59	0.118	
		G2	22	41.0000	4.909			
HN		G1	108	42.5278	5.187	0.80	0.423	
		G2	241	42.0332	5.613			
WK		G1	120	42.6083	5.368	0.60	0.552	
		G2	105	42.2000	4.917			
JJ		G1	50	42.6600	5.947	-0.42	0.678	
		G2	78	43.1026	5.756			
JE		G1	46	41.1304	5.564	0.03	0.977	
		G2	99	41.1010	5.856			
JW		G1	60	39.3667	5.253	-3.75	0.000*+	
		G2	60	42.9167	5.107			
計		G1	979	42.1808	5.385	-0.05	0.959	
		G2	1,588	42.1921	5.458			

G1 : 1학년 집단 G2 : 4학년 집단

를 놓고 볼때 社會的 自我概念에는 大學이 變化를 주지 못한다는 推論이 成立될 것 같다.

3. 道德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道德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1-4學年사이의 有意度 檢證結果는 다음의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 표<5>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두집단(G1, G2)사이에는 全大學이 한결같이 아무런 差異를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大學은 大學生들이 入學前에 이미 形成한 道德的 自我概念에 어떠한 變化(正的 혹은 負的)로 미칠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判斷을 가능케 해 준다.

<표 5> 두 集團間의 有意度 : 道德的 自我

대 학	구 분	집 단	N	M	SD	T	P	비 고
SE		G1	101	42.0396	4.684	0.28	0.779	
		G2	33	41.7576	5.093			
SJ		G1	126	44.4683	4.975	1.68	0.094	
		G2	240	43.5500	4.958			
YS		G1	94	43.6277	4.658	0.04	0.970	
		G2	180	43.6056	4.722			
EW		G1	83	44.4578	4.822	2.10	0.037	
		G2	245	43.1878	4.542			
JA		G1	92	43.8478	5.073	0.79	0.432	
		G2	221	43.3665	4.542			
KJ		G1	56	43.9643	6.036	0.03	0.978	
		G2	64	43.9375	4.496			
SS		G1	43	44.0000	4.904	1.10	0.279	
		G2	22	42.5909	4.896			
HA		G1	108	44.1296	4.639	1.70	0.091	
		G2	241	43.1909	5.049			
WK		G1	120	44.3750	5.041	1.55	0.122	
		G2	105	43.3333	4.999			
JJ		G1	50	44.2200	4.666	0.34	0.736	
		G2	78	43.9231	5.106			
JE		G1	46	42.6522	3.677	0.73	0.468	
		G2	99	42.0909	5.466			
JW		G1	60	42.8667	4.010	0.13	0.894	
		G2	60	42.7500	5.439			
計		G1	979	42.1808	5.385	-0.05	0.959	
		G2	1,588	42.1921	5.458			

G1 : 1학년 집단 G2 : 4학년 집단

4. 性格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性格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두집단(G1, G2)사이의 有意度檢證의 結果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有意한 差를 나타내고 있는 大學은 4個大學인데 그 중에서 正的 有意度를 보여주는 大學은 1個大學(JW大)이고 나머지 3個大學(SJ, HN, WK大)은 모두 負的 有意度를 보여주고 있다. 全體의으로 볼때 有意度水準($P \leq .05$)에 若干 미치지 못하는 $P = .06$ 을 나타내고 있다. 이 結果에 의한다면 在學期間이 길어지는만큼 性格的 自我概念의 測定值는 낮아지는 것으로 推定할수 있다. 따라서 大學이 性格的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의 정도는 아주 낮거나 아니면 無意味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影響을 미친다면 미치는 것 만큼 그

<표 6> 두 集團間의 有意度 : 性格的 自我

大學	구분	집단	N	M	SD	T	P	비고
SE		G1	101	40.6139	4.897	1.23	0.226	
		G2	33	39.3939	4.987			
SJ		G1	126	43.0159	5.521	2.26	0.025*-	
		G2	240	41.6375	5.578			
YS		G1	94	42.3191	5.011	0.35	0.725	
		G2	180	42.0667	5.659			
EW		G1	83	41.0723	5.755	1.24	0.217	
		G2	245	40.1755	5.519			
JA		G1	92	41.3804	5.751	-0.20	0.842	
		G2	221	41.5204	5.356			
KJ		G1	56	41.8929	5.601	-0.87	0.388	
		G2	64	42.7344	4.951			
SS		G1	43	40.7442	4.691	0.21	0.834	
		G2	22	40.4091	6.638			
HN		G1	108	42.4352	5.443	1.94	0.054*-	
		G2	241	41.1909	5.777			
WK		G1	120	42.1417	5.914	2.16	0.032*-	
		G2	105	40.4952	5.526			
JJ		G1	50	41.5200	5.448	-0.42	0.672	
		G2	78	41.9359	5.341			
JE		G1	46	40.4348	5.427	0.22	0.829	
		G2	99	40.2121	6.432			
JW		G1	60	39.4833	4.586	-2.43	0.017*+	
		G2	60	41.6833	5.322			
計		G1	979	43.7800	5.517	1.88	0.060*-	
		G2	1,588	41.2091	5.625			

G1 : 1학년 집단 G2 : 4학년 집단

것은 負的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判斷이 성립될 수 있다.

5. 批判的 自我概念에 있어서의 差異

마지막으로 批判的 自我概念에 있어서 1-4학년 두집단(G1, G2)사이의 有意度 檢證의 結果를 보면 다음 <표 7>와 같다. 有意한 差를 나타낸 大學은 3個大學에 不過한데 그 中の 1개 大學만이 正的인 有意水準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有意한 수준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표7 참조) 따라서 大學은 批判的 自我概念에 變化를 일으킬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推論이 가능하다.

<표 7> 두 集團間의 有意度 : 批判的 自我

대 학	구 분	집 단	N	M	SD	T	P	비 고
SE		G1	101	40.0594	4.413	1.36	0.179	
		G2	33	38.8182	4.586			
SJ		G1	126	41.5476	4.259	1.40	0.164	
		G2	240	40.8875	4.363			
YS		G1	94	41.0000	4.487	-0.26	0.794	
		G2	180	41.1500	4.567			
EW		G1	83	39.6867	4.423	0.41	0.681	
		G2	245	39.4531	4.574			
JA		G1	92	40.2826	5.225	-0.08	0.939	
		G2	221	40.3303	4.408			
KJ		G1	56	41.2500	5.128	-1.20	0.232	
		G2	64	42.3438	4.802			
SS		G1	43	40.5581	4.388	1.33	0.192	
		G2	22	38.9091	4.908			
HN		G1	108	41.2870	4.007	2.03	0.043*	
		G2	241	40.2739	4.891			
WK		G1	120	41.2083	4.724	3.27	0.001**	
		G2	105	39.0476	5.139			
JJ		G1	50	40.2200	5.304	-0.49	0.626	
		G2	78	40.7051	5.732			
JE		G1	46	39.3261	5.317	0.26	0.796	
		G2	99	39.0808	5.275			
JW		G1	60	39.0500	3.572	-2.01	0.047**	
		G2	60	40.5667	4.615			
計		G1	979	40.6088	4.611	1.84	0.065	
		G2	1,588	40.2582	4.789			

G1 : 1학년 집단 G2 : 4학년 집단

〈표 8〉 有意度 檢證結果의 綜合

自我領域		學問	社會	道德	性格	批判
地域	大學					
서울지역	SE	*-	-	-	-	-
	SJ	-	*-	-	*-	-
	YS	-	-	-	-	-
	EW	-	-	-	-	-
	JA	*-	-	-	-	-
	KJ	-	-	-	-	-
	SS	-	-	-	-	-
지방	HN	*-	-	-	*-	*-
	WK	*-	-	-	*-	*-
	JJ	-	-	-	-	-
	JE	-	-	-	-	-
	JW	-	*+	-	*+	*+
	計	*-	-	-	*-	-

* = P ≤ 0.05 수준의 유의도를 나타내며 +, -표는 1~4학년 사이의 점수의 증감을 나타내

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놓고 볼때 이 연구에서 내세운 假定들; 즉 대학에 따라 1-4학년사이의 自我概念點數에 있어서 有意味 혹은 無意味한 差異를 나타낼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有意味한 差異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大學環境의 無意味性을 간접적으로나마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V. 論議 및 結論

1. 論 議

大學生들의 自我概念에 있어서 1-4학년 사이에 어떠한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確認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研究者의 先行研究(1983. 1984)에서 얻어진 結果에 대하여 間接적으로나마 再確認하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진 것이다. 崔志雲은 先行研究(1983. 1984)에서 大學의 社會·心理學環境과 大學生의 情意的特性(價値指向性, 自我概念, 精神健康 등)과의 關係를 확인하는 것을 試圖한바 여기에서 그는 大學環境이 大學

6. 綜 合

以上에서 살펴 본 5個領域別 檢證結果를 綜合해 보면 〈표 8〉와 같다. 이 結果를 놓고 볼때 첫째로 有意한 差異를 나타낸 數는 13으로 全體(60항목=5개영역×12개대학)의 약 22%에 不過하다. 둘째로 有義한 差異를 나타낸 13個항목중에서도 正的인 有義度를 나타낸 것은 3개에 不過하며 그것도 1개대학(JW大)에 限定되어 있을 뿐이며 전체의 5%에 해당되는 아주 낮은 比重이다. 셋째는 有意度를 나타낸 項目들을 서울지역과 地方으로 나누어 볼때 서울 4 : 지방 9로서 地方大學에 많이 偏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로 全體적으로 볼때 學問的 自我와 性格的 自我에 대하여 有意한 差異를 보일뿐 나머지 3개 自我영역(社會, 道德, 批判的 自我)에는 有意한 差異를 나타

생의 自我概念에 미치는 영향의 說明力은 6.7%~15.2%로서 價値觀이나 精神健康보다 自我概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우세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이와같은 說明力이 1-4학년 학생사이에 果然 意味있는 肯定的(正的)差異를 가져올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이다. 萬一 여기에서 有意한 肯定的 差異를 나타낸다면 大學의 社會·心理的 환경은 大學生들의 自我概念의 形成에 肯定的으로 영향준다는 結論의 確證이 可能해 질것이다.

첫째로 1-4학년사이에 있어서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주는 것은 22%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肯定的으로 有意한 差를 보여주는 것은 5%에 不過하다(표 8 참조)이와 같은 결과는 大學環境의 無力性 혹은 無意味性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大學生들의 自我概念의 形成에 負的으로 作用할 可能性마저 內包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한편 教育環境(大學環境)이 갖는 特性으로서 影響力의 非恒常性이라든가 Bloom(1964)이 指摘하는 所謂 重複假說(overlap hypothesis)의 原理들이 이 연구의 위와같은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수 있다.

둘째로 Astin(1978)의 종단적 연구나 Rich와 Jolicoeur(1978)등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정의적 행동에 肯定 혹은 負的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一部 地方大學들은 否定的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이 연구에서도 나타내주고 있다. (표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방의 一部大學들이 서울지역의 대학들 보다 더 영향주는 대학으로 나타나있다(負的인 영향주는 대학도 HN大와 WK大를 들수 있고 正的인 영향주는 대학으로 JW大를 꼽을 수 있다)

셋째로 崔志雲의 研究(1983. 1984)에서는 大學生의 情意的 特性中 自我概念이 價値觀이나 精神健康보다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變因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에서 보면 大學環境의 영향력은 無意味하거나 一部 自我概念領域(學問的 性格的 自我概念)에 負的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示唆해 준다. 따라서 崔志雲이 先行研究에서 指示한 自我概念에 대한 大學環境의 試明力(6.7%~15.2%)마저도 否定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結 論

위에서 살펴본 결과와 해석 그리고 論議를 근거로 다음의 몇가지 結論을 導出키로 한다.

첫째로 全般的으로 볼때 自我概念에 있어서 1-4학년 사이에 有意味한 差異가 存在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大學의 社會·心理的 環境이 大學生의 自我概念의 形成에 미치는 영향력은 無意味하다.

둘째로 大學單位로 볼때 1-4학년 사이에는 大學에 따라 有意味한 差와 無意味한 差를 나타내며 또 有意味한 差를 나타내는 大學中에는 1개大學을 除外하고는 모두 負的인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大學이 自我概念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기는 하지만 肯定보다 否定的인 方向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로 이 研究는 研究者의 先行研究結果에 기초하여 資料를 分析하고 解釋을 加하고 있지만 標本大學과 對象學生數의 制限등을 비롯하여 接近上의 弱點을 排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 연구는 Astin(1978)이 接近한 바와 같은 縱斷的 研究에 의하여 補完될 必要가 있다.

參 考 文 獻

- 李潤樹 外, 大學의 心理的 風土와 學生의 行動特性에 관한 研究(문교부 학술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71.
- 李潤樹, 大學의 環境과 機能遂行에 관한 研究, 建國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 崔志雲, 大學의 社會・心理的 環境變因과 大學生의 情意的 特性變因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高麗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 崔志雲, “大學의 社會・心理的 環境이 情意的 特性에 미치는 影響”, 論文集(人文科學篇) Vol. XIV. 崇田大 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4. pp. 253~264.
- 黃禎奎, 大學環境의 社會・心理的 特性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82.
- Allport, G.W., Vernon, P.E., and Lindzey, G.A., *Study of Values*,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 Astin, A.W., *The Inventory of College Activities (ICA): Assessing the College Environment Through Observable Events*, Chicag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65 (a).
- Astin, A.W., *The College Environment*,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68.
- Astin, A.W.,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1977.
- Bloom B.S., *Stability and Changes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1964.
- Bowers, W.J., *Student Dishonesty and its Control in College*.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OE. 1672, N.Y.: Bureau of Applied Social Research, Columbia Univ., 1964.
- Bookover, W.B., Beady, C., Flood, P., Schweitzer, E., Wisenbaker, J.,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East Lansing, Michigan: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 1977.
- Coleman, J.S. et 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Dave, R.H.,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i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63.
- Dressel, P.L., and Mayhew, L.B., *General Education Explorations in Evalu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4.
- Eysenck, H.J., *The I.Q. Argument*, Freeport, New York: Library Press, 1971.
- Feldman, K.A. & Newcomb, T.M.,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vol.1)*, San Frans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6.
- Goldsen, R.K. et al., *What College Student Think*, Princeton, N.J.: D. Van Nostrand, 1960.
- Herrnstein, R.E., *I.Q. in the Meritocracy*, Boston: Atalntic-Little, Brown, 1973.
- Hunt, D.,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A challenge found wanting before it was tired.”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 209-230, 1975.
- Jacob, P.E., *Changing Values in College: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mpact of College Teaching*, New York: Harper & Row, 1957.
- Lewin, K.,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35.

- Lewin, K.,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1936.
- MeDill E.L., and Rigsby L., *The Academic Impact of Educational Climates: Structure and Process in Secondary School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Pace C.R. and Stem G.G.,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9, 269-277, 1958.
- Rich, H.E. Jolicoeur, P.M., *Student Attitudes and Academic Environ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7.
- Sanford, N. (ed.), *The American College: A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rpretation of the Higher Learning*, New York: John Wiley, 1962.
- Shavelson, R.J., Hubner, J.J. and Stanton, G.C.,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3), 1976, pp. 407-441.
- Stern, G.G., Stein, M.I., & Bloom. B.S., *Methods in Personality Assessment*, Glencoe, III; Free Press, 1956.
- Stern, G.G., *Preliminary Manual: Activities Index; College Characteristics Index*, Syracuse: Syracuse Univ., Psychological Research Center, 1958.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s of Colleges in Korea: A Significant Validation Between Freshmen and Senior Students' Self-Concepts

Choe, Jee-Woon

1. Purposes of the Study

This study takes as its point of departure the previous studies done by the same author such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Socio-psychological College Environments and the Students' Affective Characteristics" (1983) and "The Influential Effects of the College Environments on the Students' Affective Characteristics" (1984). Based on the findings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ing between freshmen and senior students and thereb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s of colleges influence the formation of students' self-concepts.

2. Method

This study uses the self-concept test (Reliability: $\alpha = .71$) that is devised for the previous studies by the same author. For objects of the test, twelve 4-year Korean colleges a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Of the twelve colleges, 1,300 freshmen and 1,800 senior students are selected by the same method. Of these students tested, 979 freshmen and 1,588 seniors (75.3 percent and 88.2 percent of each group respectively) gave valid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are statistically treated to obtain the significant level between the two groups.

3. Results(Conclusion)

1. Of the freshmen and senior students who are tested, those who exhibi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unt to 22 percent and those who show positive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5 percent. This can be interpreted to indicate that the influence that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s exert on students in the formation of self-concepts is very weak or almost none.
2. Some colleges in local areas hold stronger influence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self-concepts than their counterparts in Seoul area.
3.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adict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1983, 1984), which evidence the accountability (6.7%–15%) of college environments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self-concepts.